

중공산당, 당근·채찍 병행 'SNS 다잡기'

젊은 세대 정치 불만 확산 당국, 불온사상 탄압하고 뉴미디어 '중국몽' 퍼뜨리기

중국 공산당이 젊은 세대의 정치 불만과 냉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뉴미디어 등에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대응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 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당의 영도'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강대국 부상,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등을 선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애용하는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이라는 단어에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런 선전은 중국의 젊은 세대에

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실은 기득권 세력이 모두 차지할 뿐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노동자, 퇴역 군인, 대학생, 교사 등의 파업이나 시위도 늘고 있다.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 사회 불평등에 지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은둔과 고독을 즐기자는 냉소주의가 퍼지는 분위기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반발과 냉소주의가 확산할 경우 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등을 대상으로 '불온사상'을 유포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새해 들어 한 달 동안 700개 이상의 웹사이트와 9300개가 넘는 스마트폰 앱을 폐쇄했다. 이들 사이트와 앱이 부적절하거나 해로운 내용을 담고 있

다는 이유에서였다.

단속 대상이 된 위챗의 한 계정은 유능한 젊은이가 성공을 위해 애쓰지만 결국 좌절하고 가난 속에서 죽음을 맞는다라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는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를 퍼트렸다는 등의 이유로 당국의 철거를 맞았고, 이 계정의 운영자는 공개 사과하고 계정을 폐쇄해야 했다.

불온사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중국 당국은 뉴미디어 등을 만들어 당이 원하는 '긍정적인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보위원회가 운영하는 위챗 계정 '장안劍(長安劍)' 계정,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계정 협격도(俠客島) 등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노력을 가감 잘 보여주는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장안劍은 600만 명 이상, 협격도는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소셜미디어에 정통한 젊은 이들을 선발해 수도 베이징에서 수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후 지방 정부로 내려보내 뉴미디어 운영 등을 맡기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뉴미디어가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 수 있도록 당국은 아이튠즈 선정과 편집 등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보장한다. 시 주석이 지난달 말 인민일보 뉴미디어 본부를 방문해 '모바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시 주석은 "모바일 플랫폼을 우선해야 한다"며 "선전 부문의 간부들은 웹사이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위챗, 모바일 신문, IPTV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중국 전문가인 헨리 찬은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미디어의 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68〉 이덕유

이덕유(李德裕, 787~850)는 조곤 출신으로 자는 문요다. 재상 이길보의 아들로 당 후기 대표적 정치인이다.

어려서부터 한서, 좌전을 즐겨 공부했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목종 때 응시로 출사했다. 한림학사와 둔전원의 랑을 거쳐 고공낭중이 되었다. 821년 평생의 정적 우승유와의 우이(牛李) 당쟁이 시작되었다. 그해 실시된 과거에서 서천절도사 단문창, 학림학사 이신이 추천한 인재들이 모두 낙방한 반면 대신의 자제들이 대거 합격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 재시험이 실시되었다. 단문창과 이신 진영에 이덕유가 반대 진영에 이종민, 우승유가 가담했다. 특히 지방으로 좌천된 중서사인 이종민과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823년 절서관찰사로 부임했다. 재상

받고 장안으로 가는 도중 명령이 취소되었다. 낙담한 양흥의가 이덕유가 준 선물을 돌려주자 그는 장군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니 껄nem치 말라는 뜻을 전했다. 양흥의는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다.

840년 무종이 즉위했다. 이덕유를 재상으로 기용했다. 재상이 되자 세 가지 대책을 황제에게 건넰다. 첫째 군정의 정적 우승유와의 우이(牛李) 당쟁이 시작되었다. 그해 실시된 과거에서 서천절도사 단문창, 학림학사 이신이 추천한 인재들이 모두 낙방한 반면 대신의 자제들이 대거 합격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 재시험이 실시되었다. 단문창과 이신 진영에 이덕유가 반대 진영에 이종민, 우승유가 가담했다. 특히 지방으로 좌천된 중서사인 이종민과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823년 절서관찰사로 부임했다. 재상

환관 세력 전횡에 맞선 당 후기 정치인

이봉길이가 그의 재상길을 막기 위한 인사 조치였다.

825년 경종에게 중요사직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희에 몰두한 경종의 행동을 바꾸는데는 실패했다. 경종 사후 문종이 즉위했다. 문종은 환관의 영향력을 줄일 조정 개혁에 관심이 컸다. 829년 재상 배도이 죽기 직전 조카 유진을 병부시랑으로 발탁했다. 재상으로 기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그러나 먼저 재상이 된 이종민이 그를 정주절도사, 활주절도사로 내쳤다. 833년 재상으로 임명되었다. 이날 기쁨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던 장안에 큰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이를 이덕유(李德裕)로 불렀다. 이종민을 산남서도절도사로 좌천시켰다. 진사 과거제를 손질하고 종실의 왕들을 외국의 사신으로 보내는 등 국정에 전념했다.

향을 예의주시해 병란으로 커지는 것을 막았다. 또한 양흥의와 힘을 합쳐 구사랑 세력의 전횡을 막았다. 무종은 점차 환관 대신 이덕유 등 관료에 의지했다. 구사랑은 무종과 이덕유의 압력에 못 이겨 정식 은퇴를 선언했다. 하북 번진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하북의 소의진을 수복하는데 성공했다. 소의절도사 유중간이 죽기 직전 조카 유진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덕유는 유진을 토벌할 것을 주청했다. 844년 결국 소의진은 조정 에 귀순하기로 결정했다. 845년 과도한 시주와 사찰 건립으로 재정을 압박한 불교에 대한 개혁에 착수했다. 회창 법난(會昌法難)으로 불리는 강력한 억불 정책이 시행되었다. 4600여 사람을 폐지하고 26만명의 승려가 환속했다. 수만경의 토지와 15만명의 노비가 조정에 회수되었다. 다음해 무종이 급서하자 복불령(復佛令)이 내려졌다. 도사 조귀진도 사형에 처해졌다.

835년 감로지변(甘露之變)이 일어났다. 문종이 이훈, 정주와 합심해 환관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사는 실패하고, 구사랑 등 환관 세력은 수천명을 처형했다. 문종은 환관에 둘러싸인채 무기력한 군주 신세가 되었다. 그는 감로지변 직전 재상직에서 물러나 회남절도사가 되었다. 이때 환관 양흥의와 깊은 유대를 맺었다. 양흥의가 돌아오라는 명을

846년 무종이 급단약의 후유증으로 붕어했다. 황숙인 광왕이 선종으로 즉위했다. "황제가 바뀌면 신하도 바뀐다"는 옛말처럼 형남절도사로 좌천된 군주 신세가 되었다. 그는 감로지변 직전 재상직에서 물러나 회남절도사가 되었다. 이때 환관 양흥의와 깊은 유대를 맺었다. 양흥의가 돌아오라는 명을



하노이 노점상의 인공기와 성조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노점상에 지난 1월29일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상원 의원들이 오는 27~28일 하노이에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그중 외교부 소속 공화당 및 례니(유타) 상원의원은 "희망 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장 추방하라"...中여대생 무례에 발각 뒤집힌 필리핀

필리핀 사회가 중국 여대생이 경찰관에게 저지를 무례한 행동 때문에 발각 뒤집혔다.

11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9일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만달루용시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발생했다. 이 도시의 모 디자인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인 장(23)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께 두유

푸딩의 일종인 '타호'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들고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했다.

그러자 현지 경찰관이 "도시철도에 액체류 반입이 안 된다"면서 타호를 다 마시거나 버리고 들어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 씨는 타호가 담긴 컵을 경찰관에게 던져 버리고 들어갔다. 장 씨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신원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이 같은 소식이 관련 사진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무례한 중국인을 당장 추방하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레니 로브레도 필리핀 부통령은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